

169-3

순자에 따르면 예는 고대 성왕이 제정한 사회 규범으로,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사람들에게 직업을 차등적으로 배분하고 그에 따라 차등적인 대우를 하는 기준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26 수능특강 60쪽 <자료 플러스>

해설 : 순자는 예(禮)로써 사람들의 직분에 차등을 두고, 재능과 기술을 따져 능력 있는 사람에게 벼슬을 주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보았다.

169-4

플라톤에 따르면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 각자의 타고난 소질을 발견하고 계발하여 그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후천적인 교육이 아니라’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169-9

마르크스에 따르면 소외 현상을 해소하는 방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르크스는 소외 현상이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소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철폐하는 것이 유일한 방도가 될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보기에 자본주의 체제가 잔존하는 한, 자본가와 노동자가 연대를 하든,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 주든, 노동자에 대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든, 그 무엇도 소외 현상을 해소하는 방도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분업이 소외 현상을 해소하는 방도라는 표현은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애초에 자본주의 체제의 분업이야말로 소외 현상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170-4

맹자에 따르면 통치의 궁극적 목적은 도덕적 사회의 구현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도덕적 사회의 구현을 위해 백성의 경제적 안정[恒產]이 필요한 것이고요. 즉 백성의 경제적 안정은 통치의 궁극적 목적

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통치의 궁극적 목적은 아닙니다.

추가로, 맹자는 왕도 정치의 ‘시작’이 백성의 생업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산 사람을 돌보고 죽은 사람을 보낼 때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해서 유감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왕도 정치의 시작이다.”).

26 수능특강 64쪽 1번 문항

ㄹ. 맹자 : 통치의 궁극적 목적은 백성이 경제적 안정을 얻는 것이다. (X)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19쪽 1번 문항

문제분석 中 : 맹자는 군주가 백성에게 향산을 마련해 주는 것이 왕도 정치의 바탕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ㄹ. 맹자에 따르면 통치의 궁극적 목적은 향산을 통한 항심, 즉 백성이 경제적 안정을 얻음으로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170-5

칼뱅은 직업 생활에 충실하더라도 신의 소명에 따라 이웃 사랑을 베풀지 않거나 부의 축적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26 수능특강 64쪽 2번 문항

칼뱅 제시문 : 모든 일에 신의 소명(召命)이 바른 활동의 시작이요 기초라는 사실을 알면 그것으로 죽하다. 신의 소명에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정도(正道)를 따라 신 앞에 의무를 다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 사람도 때로는 무언가 칭찬받을 만하게 보이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행하는 일은 신의 보좌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170-6

칼뱅에 따르면 내세의 구원은 직업적 성공 여부에 따라 신이 내리는 축복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여부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170-9

칼뱅에 따르면 모든 직업은 신이 부여한 소명이며, 따라서 직업의 귀천을 구별하려고 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직업 활동을 천하게 여기는 것은 신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일입니다.

26 수능특강 64쪽 2번 문항

- ④ 칼뱅 : 천하게 여기는 직업 활동도 신이 보기에 귀할 수 있다. (O)

171-3

순자에 따르면 고대 선왕은 이기적인 사람들 사이의 혼란과 다툼을 막기 위해 사회 규범으로서의 예를 제정하고, 그에 따라 빈부 귀천의 차등을 두었습니다. 169-3 해설 참고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20쪽 1번 문항

문제분석 中 : 순자는 예(禮)에 따라 구성원들의 신분과 지위에 차등을 두어 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덕(德)의 유무에 따라 사회적 지위에 차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171-4

순자에 따르면 백성이든 군주이든 자신의 직분에만 충실하면 되지, 다양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71-7

정약용에 따르면 목민관은 사적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다만 청렴하고 절용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사적으로 재산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플라톤입니다.

26 수능특강 69쪽 7번 문항

- 그. 정약용 : 목민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으로 재물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X)

171-9

마르크스에 따르면 인간은 분업화를 통해 부분 노동

자가 되며, 생산에 필요한 정신적 능력을 제외한 모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172-2

순자에 따르면 통치자는 기본적으로 덕에 기반한 통치, 즉 덕치를 해야 합니다. 또는 예에 기반한 통치로서의 예치를 해야 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덕이 아닌'이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26 수능특강 66쪽 1번 문항

- ㄹ. 순자 : 통치자는 덕에 기반을 둔 정치가 아니라 법에 기반을 둔 정치를 해야 한다. (X)

172-3

플라톤에 따르면 세 계층(통치자, 방위자, 생산자)의 습성은 본래 상이하며, 바로 그것이 계층 간의 조화, 그리고 국가 전체의 조화로서의 정의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26 수능특강 66쪽 2번 문항

플라톤 제시문 : 각 사람은 국가와 관련된 일 가운데 자기 성향에 가장 적합한 한 가지 일에 종사해야 한다. 따라서 세 계층 간 직무를 교환하는 것은 국가에 해악이자 악행이 된다. 나라가 절제 있고 용기 있으며, 지혜로운 것도 바로 이들 세 부류가 처한 상이한 처지와 상이한 습성으로 인한 것이다.

173-3

베버에 따르면 프로테스탄티즘에서는 부의 추구를 긍정하였지만, 부를 축적하는 것 자체를 궁극 목적으로 삼는 것을 긍정하지는 않았고, 다만 신이 부여한 소명인 직업 노동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로 부가 축적되는 것을 신의 축복으로 간주하고 허용하였습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프로테스탄티즘의 금욕주의가 부를 목적 그 자체로 추구하는 것을 긍정하였다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21쪽 4번 문항

- ④ 베버에 따르면 프로테스탄티즘의 금욕주의는 직업 활

동을 통한 부의 추구를 인정하였지만, 부를 목적 그 자체로 추구하는 것은 부정하였다.

173-3 해설 참고

173-4

칼뱅에 따르면 신이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각자에게 소명을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칼뱅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이미 신이 신의 의지에 따라 각자에게 소명을 부여하였다고 봅니다.

26 수능특강 67쪽 4번 문항

- ⑤ 칼뱅: 신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각자에게 소명으로서 직업을 지정하였다. (X)

173-8

마르크스는 모든 구성원이 일한 만큼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 공산 사회가 이상 사회라고 봅니다.

173-9

맹자에 따르면 선비는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유지할 수 있고, 백성은 항산이 있어야 항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백성은 항산이 있어도 항심을 유지할 수 없다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174-2

정약용에 따르면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목민관은 덕에 따라 백성들을 통치하고자 합니다. 오히려 덕에 따르지 않고 엄격한 법령에만 집착하고 얹매이는 목민관이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인(仁)하지 않은 목민관일 것입니다.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21쪽 7번 문항

- ㄹ. 정약용에 따르면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목민관은 덕에 따라 백성을 이끈다.

174-6

174-7

마르크스에 따르면 노동의 본질은 자아실현, 즉 인간의 자기 본질 실현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노동의 본질이 왜곡되어, 모든 노동자가 자발적 노동이 아닌 강제된 노동, 참된 노동이 아닌 죽은 노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노동자는 '언제나'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한 노동을 한다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21쪽 5번 문항

문제분석 中: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한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 예속되어 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고 주장하였다.

174-8

마르크스에 따르면 노동자의 상품 생산량이 늘어날 수록, 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26 수능완성 42쪽 4번 문항

마르크스 제시문 中: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부를 생산하면 할수록, 그 생산의 힘과 범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더 가난해진다. 노동자는 상품을 만들면 만들수록, 자신은 그만큼 더 값싼 상품이 된다. 사물 세계의 가치 증대에 정비례해서 인간 세계의 가치 저하가 심해진다.

174-9

마르크스에 따르면 공산 사회는 애초에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계급 간의 연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74-10

마르크스에 따르면 국가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오히려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이상 사회인 공산 사회에서는 국가

(정부)가 철폐되고, 자유로운 개인들 간의 연합체로서의 공동체만이 남는다고 주장합니다.

175-2

정약용에 따르면 목민관은 선을 좋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약용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구를 긍정합니다. 다만 그 욕구에는 육체적 욕구도 있고,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도덕적 욕구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 도덕적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정약용의 주장입니다.

175-3

맹자에 따르면 백성의 도덕적 일탈은 군주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의 경우 항산이 없으면 항심을 유지할 수 없는데, 만약 백성의 도덕적 일탈이 항산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백성의 항산을 보장해 주지 않은 군주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5 6월 모의평가 7번 문항

- ㄷ. 맹자 : 궁핍한 백성의 도덕적 일탈은 군주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다. (O)

175-5

플라톤에 따르면 철학과 정치 권력은 결합되어야 합니다. 즉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거나, 통치자가 철학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플라톤의 정치 사상을 두고 ‘철인 정치’라고 합니다.

26 수능완성 41쪽 1번 문항

- 플라톤 제시문 中 : 또한 철학자들이 나라의 군주로서 다스리거나 현재의 군주 또는 최고 권력자들로 불리는 이들이 진실로 충분히 지혜를 사랑해야 한다.

175-6

플라톤과 공자 모두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사회적 역할 분담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플라톤은 개인의 선천적인 소질과 후천적인 교육의 결과에 따

라, 공자는 개인의 덕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176-4

순자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의 역할은 예, 그리고 개인의 덕과 능력에 따라 정해져야 합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예가 아니라’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176-5

순자에 따르면 통치자는 예를 통해 백성이 갖고 있는 무분별한 욕망을 적절하게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어서 자신의 욕망을 무제한으로 충족하고자 하지만, 그에 비해 사회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순자는 예에 따라 사회적 직분을 나누고 그에 따라 욕구 충족의 적절한 선을 정한 후, 각자의 선에서 욕망을 적절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갈등과 혼란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26 수능특강 64쪽 4번 문항

- 순자 제시문 :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 아래와 위의 차이가 있다. 권세나 지위가 등등하고 욕심과 싫어함이 같되 물건이 넉넉하지 못하다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난다. 선왕(先王)은 그 혼란이 싫어 예의 법도를 마련하여 그것으로 신분을 가르고 빈부 귀천의 차등을 두었다.

176-6, 176-7, 176-8, 176-9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체제의 분업은 노동자를 착취하고 소외시키며, 노동자를 기계의 부품으로 전락시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 전체의 생산성의 차원에서 보면 효율적이고, 사회의 부를 증대시켜 주는 효과적인 매커니즘이기도 합니다.

26 수능완성 43쪽 5번 문항

- 마르크스 제시문 中 : 분업은 노동 생산력을 높이고 사회의 부를 높이지만, 노동자를 기계로 전락시키기도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자본의 목적을 가져오고 동시에 사회의 풍요로움을 증대시키는 반면, 노동자로 하여

금 자본가에게 더 의존하게 만들고 노동자를 더욱더 심한 경쟁에 몰아넣는다.

176-10

마르크스에 따르면 능력에 따른 분배를 통해서는 노동자의 자아실현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받게 될 몫에 대한 걱정 없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받는 공산 사회에서만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하며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마르크스의 주장입니다.

을 섞었고, 농부나 다른 장인들에게는 철과 청동을 섞었다. 대부분의 경우 부모는 자신과 닮은 자손을 낳게 된다. 하지만 모두는 서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때로는 금의 부모로부터 은의 자식이 태어나기도 하고, 또 그와는 반대의 경우도 일어난다.

177-3

마르크스와 칼뱅 모두 노동의 본질적인 목적은 물질적 이윤의 획득이 아닌 다른 것에 있다고 봅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노동의 본질적인 목적은 노동을 통한 노동자의 자기 실현에, 그리고 칼뱅에 따르면 노동의 본질적인 목적은 신의 영광 실현에 있습니다.

26 수능완성 43쪽 5번 문항

- ⑤ 마르크스와 칼뱅 : 노동의 본질적인 목적을 물질적 이윤 획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O)

참고로, 노동의 본질적인 목적이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것'에 있는 것과 '신으로부터 구원 받는 것'에 있는 것은 염연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칼뱅에 따르면 전자는 실제로 노동의 본질적인 목적이 될 수 있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지요?

177-6

플라톤에 따르면 개인은 부모의 타고난 성향이 아닌, 자기 자신이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에만 종사해야 합니다. 예컨대 부모는 통치자인데 자식은 방위자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타고난 성향을 자식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26 수능완성 43쪽 6번 문항

- 플라톤 제시문 中 : 신은 우리를 만들면서 능히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금을 섞었다. 이들이 가장 존경받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신은 방위자들에게는 은

177-7

플라톤에 따르면 정의로운 국가의 방위자는 용기와 절제의 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는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을, 생산자는 절제의 덕을 갖추고 있습니다.

177-8

정약용에 따르면 목민관은 물론 기본적으로 청렴하고 절용해야 하지만, 동시에 치밀하고, 집행하는 정책의 실효도 있어야 훌륭한 목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 수능완성 45쪽 10번 문항

- 정약용 제시문 中 : 청렴(淸廉)하게 된다는 것은 수령된 자의 본연의 의무로서 온갖 선정(善政)의 원천이 되고 모든 덕행의 근본이 된다. 청렴하지 않고 목민관 노릇을 제대로 한 사람은 아직 없다. 청렴하면서 치밀하지 못하거나 재물을 내어쓰되 실효가 없으면 또한 잘된 일이라 할 수 없다.

22 6월 모의평가 8번 문항

- 정약용 제시문 中 : 수령이 치밀하지 못하여 재물을 쓰는 방법을 몰라 실효(實效)가 없으면 안 된다. 수령이 경비를 남용하면 재정이 부족해져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게 된다.

178-1

정약용은 목민관이 먼저 덕을 갖춘 후에 백성을 도덕적으로 교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유교에서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수기안인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8-3

정약용은 목민관의 사적인 재산 소유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171-7 해설 참고

178-5, 178-6, 178-7

플라톤에 따르면 절제의 덕은 누가 국가를 통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의 덕입니다. 이는 나의 직분이 아닌 일에는 나서지 않고, 통치는 통치자에게 맡기는 것이 곧 사회의 모든 계층이 갖추어야 하는 절제의 덕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물론 통치자 계층 만의 의견 일치가 아닌, 모든 계층의 의견 일치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반목’은 서로 미워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절제의 덕을 표현하는 단어가 될 수 없습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14쪽 1번 문항

『中』: 플라톤은 구성원들이 절제의 덕을 함양했을 때 계층 간 역할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았다. 플라톤은 누가 국가를 통치해야 하는가에 대해 합의하기 위한 덕으로서 절제를 강조하였다.

178-8

맹자에 따르면 백성의 도덕적 인도도 군주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170-4 해설 참고

179-1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분업 체계 아래에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은 발달하지만 노동자의 정신적 능력은 쇠퇴합니다. 176-6, 176-7, 176-8, 176-9 해설 참고

179-2

정약용은 공직자가 친척이 처한 어려움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들을 적절하게 돋고자 하는 어진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79-7

정약용은 목민관이 기존의 전통과 관례를 충실히 따르는 것보다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때에 따라 불가피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길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기존의 전통과 관례를 바꿀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26 수능완성 116쪽 20번 문항

정약용 제시문 中: 청렴하면서 치밀하지 못하거나 재물을 내어 쓰되 실효가 없으면 잘된 일이라 할 수 없다. 또한 무릇 잘못된 전례(前例)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애써 바로잡아 고쳐야 한다.

26 수능완성 116쪽 20번 문항

③ 정약용: 백성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관행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 (O)

179-10

칼뱅에 따르면 구원 여부는 이미 정해져 있기에(구원 예정설), 직업적 성공 여부에 따라 구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180-1

맹자는 통치자가 이로움, 즉 이익보다는, 인의, 즉 도덕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맹자에 따르면 국가의 모든 사람이 이로움을 추구할 경우, 이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6 수능특강 71쪽 〈자료 플러스〉

맹자 자료: 맹자가 양혜왕을 접견했다. 왕이 말했다. “선생처럼 고명한 분이 천 리 길을 멀다 하지 않으시고 찾아주셨으니 장차 우리나라에 이익이 있겠지요?” 맹자가 말했다. “왕께서는 어째서 이익에 대해서만 말하십니까? 진정 중요한 것으로는 인의(仁義)가 있을 뿐입니다. 만약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아래에 있는 대부는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선비와 서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 한 몸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위아래가 다투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하면 나라는 위태로워집니다.”

180-5

맹자와 정약용 모두 통치자는 우선적으로 자신을 수양한 후에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유교에서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수기안인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42쪽 9번 문항

르. 맹자와 정약용 모두 유교 사상가로서 통치자가 자신을 수양한 후에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는 수기안인(修己安人)을 강조하였다.

180-10

순자는 각자의 욕망에 따라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신분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49쪽 3번 문항

① 순자는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고, 예(禮)에 따라 신분과 직분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81-9

169-3 해설 참고

182-1

노동이 (아담과 이브가 지은) 원죄에 대한 별이며, 따라서 속죄의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중세 그리스도교입니다. 칼뱅은 노동은 신이 지정한 삶의 양식, 즉 신의 소명이며, 속죄의 차원보다는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각자가 자신의 직업 생활에 충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82-5

맹자에 따르면 백성과 달리 선비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져도, 즉 항산이 없어도, 도덕적인 마음, 즉 항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73-9 해설 참고

182-6

플라톤에 따르면 개인의 선천적인 소질과 후천적인 교육에 따라 역할이 분담되어야 합니다. 즉 누구나 수양을 통해 통치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소질 자체가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소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182-8

칼뱅에 따르면 직업의 목적은 부의 축적보다는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173-3 해설 참고

182-9

칼뱅에 따르면 구원 여부는 이미 정해져 있기에(구원 예정설) 직업적 성공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182-10

마르크스에 따르면 기술적 분업을 통해서는 노동자의 여러 기능 중에서도 오직 노동에 필요한 특수한 기능만이 촉진됩니다.

183-3

정약용은 목민관의 사적인 재산 소유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171-7 해설 참고

183-4

176-6, 176-7, 176-8, 176-9 해설 참고

183-5

182-10 해설 참고

183-9

마르크스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

는 공산 사회에서 노동 소외가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설 참고

184-6

180-1 해설 참고

184-7

플라톤에 따르면 지혜, 용기, 절제의 각 덕목이 조화를 이룰 때 나타나는 최고의 덕목은 바로 정의입니다.

184-9

169-9 해설 참고

184-10

176-6, 176-7, 176-8, 176-9 해설 참고

185-2

칼뱅에 따르면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것이 직업 활동의 궁극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칼뱅이 보기에 부의 축적은 결코 직업 활동의 궁극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182-8 해설 참고

186-6

174-7 해설 참고

186-7

177-3 해설 참고

186-8

플라톤에 따르면 국가를 구성하는 세 계층은 모두 절제의 덕을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177-7 해

186-9

공자와 플라톤 모두 개인의 역할이 배분된 후에는, 각자가 자신의 직분에 걸맞는 덕을 갖추고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만 이상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21 수능 9번 문항

ㄹ. 공자와 플라톤 : 구성원의 역할이 분담되면 자연스럽게 이상적 국가가 실현된다. (X)

186-10

마르크스에 따르면 오히려 매뉴팩처, 즉 분업이야말로 노동 소외의 원인입니다. 169-9 해설 참고

187-2

정약용에 따르면 명분이 바른 것 중에서도 자신의 녹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취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청렴입니다.

26 수능특강 69쪽 7번 문항

정약용 제시문 : 청렴에는 세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최상은 봉급 외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먹고 남은 것을 가져가지 않으며, 벼슬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한 필의 말로 조출하게 가는 것이니, 이것이 아주 옛날의 청렴한 관리입니다. 그 다음은 봉급 외에 명분이 바른 것은 먹고 바르지 않은 것은 먹지 않으며, 먹고 남은 것을 집으로 보내는 것이니, 이것이 조금 옛날의 청렴한 관리입니다. 최하는 무릇 규례(規例)가 된 것이라면 비록 명분이 바르지 않더라도 먹지만, 규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먼저 시작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오늘날의 청렴한 관리입니다. 최상이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다음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최하의 경우는 옛날 같으면 형벌에 처했을 것입니다.

187-6

정약용은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목민관이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

다. 이는 결국 목민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을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6 수능완성 131쪽 17번 문항

정약용 제시문 中 : 법은 임금의 명령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법을 어겨 죄를 받는 날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땅을 굽어봐도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 법을 어긴 것이 반드시 백성을 이롭고 편하게 한 일이라면 다소 넘나들이 있을 수 있다.

⑤ 정약용 : 목민관이 백성의 이익을 위해 법을 다소 어기더라도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O)

187-8

니부어는 개인과 사회의 속성뿐만 아니라 도덕적 이상 역시 서로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니부어에 따르면 개인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 사회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입니다.

26 수능특강 70쪽 〈자료 플러스〉

해설 中 : 니부어는 개인과 사회의 속성이나 도덕적 이상이 서로 다르므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88-2

니부어에 따르면 강제력은 국가를 보존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26 수능특강 76쪽 1번 문항

니부어 제시문 中 : 따라서 가장 친밀한 사회 집단보다 규모가 큰 사회적 협력은 모두 일정한 강제성을 요구한다. 어떠한 국가도 강제성 없이 국가를 보존할 수는 없다.

188-4

니부어에 따르면 인간 사회에 항구적인 평화, 즉 영원한 정의, 혹은 집단 갈등의 종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니부어는 집단 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만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26 수능특강 76쪽 1번 문항

ㄴ. 니부어 : 인간 사회에 항구적인 평화와 동포애는 실현될 수 있다. (X)

영원한 평화란 불가능하며,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 이거 뭔가 의숙한 주장이지 않나요? (그래야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평화 윤리 파트에 가면 현실주의의 입장을 배우게 되지요. 현실주의에서는 국제 사회란 이기적인 국가들의 권리 투쟁의 장이며, 국가 간에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만 평화가 일시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중 현실주의는 니부어 사상의 영향을 대거 받아 확립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188-7

니부어에 따르면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은 도덕적 이성과 조화를 이를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에서는 어떻게 도덕적 이성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26 수능특강 78쪽 1번 문항

니부어 제시문 中 : 도덕적 이성은 어떻게 강제력의 희생이 되지 않고서 강제력과 동맹을 맺을 것인지를 배워야 한다.

188-9

니부어는 사회적 지성이 일반적으로는 특정 계층의 요구를 지원하지 않고 비특권 계층을 지지하고자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한 사회적 지성은 그 자체로는 힘이 약하므로, 집단 간 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강제력의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26 수능특강 78쪽 1번 문항

니부어 제시문 中 : 사회적 지성은 일반적으로 점차 증대해 가면서 사회적 특권 세력의 요구를 억제하고 비특권 계층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사회 내에서 이성의 힘은 완전한 힘의 평등을 가져올 만큼 충분히 강력하지 못하다.

189-3

니부어는 정치란 본래 윤리적 요인과 강제적 요인이 불안정한 타협을 이루는 영역이라고 주장합니다.

26 수능특강 76쪽 1번 문항

니부어 제시문 中 : 또한 정치는 인간 생활의 윤리적 요인과 강제적 요인이 상호 침투하여 잠정적이고 불안정한 타협을 이루는 영역이다.

189-4

니부어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은 집단 간 힘의 균형을 더욱 평등하게 이룩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역사나 그러한 이성은 그 자체로는 힘이 약하므로, 집단 간 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강제력의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26 수능특강 78쪽 1번 문항

④ 니부어 : 인간 이성 자체는 집단 간 힘의 균형을 더욱 평등하게 이룩하려는 경향이 있다. (O)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24쪽 1번 문항

문제분석 中 : 니부어는 인간 이성과 양심은 집단 간의 힘의 균형을 가져올 만큼 충분히 강력하지 못하다고 보고, 집단 간의 힘의 균형을 위해서는 사회적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90-2

니부어는 강제력이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190-4

니부어에 따르면 집단의 이기심을 다른 집단의 이기심을 통해 견제할 수 있으므로, 집단 간 이기심의 충돌이 언제나 사회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190-5

니부어에 따르면 인간은 이중적 존재로, 이기성과 이타성을 동시에 타고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집단에 소속되면 이기성은 극대화되고, 이타성조차도 이기성의 노예가 되니,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이기심은 언제나 집단 속에서 후천적으로 형성된다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190-8

니부어는 일반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집단 이기주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16쪽 1번 문항

① 니부어는 모든 공동체에서 집단 이기주의 현상이 출현하며 국가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았다.

190-10

니부어는 개인의 도덕적 이상, 즉 이타성과, 사회의 도덕적 이상, 즉 정의가 서로 조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타성과 정의 사이에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을 사용해야 하는데, 누군가를 강제하는 힘인 강제력은 이타성에 위배될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 이타성과 정의 사이의 모순은 지속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순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니부어에 따르면 선의지의 통제 아래에서 강제력을 최소한으로 사용할 경우, 이타성과 정의는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의 도덕적 이상과 사회의 도덕적 이상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16쪽 1번 문항

③ 니부어는 개인의 도덕적 이상인 이타심과 사회의 도덕적 이상인 정의가 항상 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조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20 9월 모의평가 6번 문항

② 니부어 : 개인과 사회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 간의 모순은 절대적이다. (X)

191-4

니부어에 따르면 강제력은 본질적으로 비합리적인 수단입니다. 즉 본질적으로 합리적인 강제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니부어는 본질적으로 비합리적인 강제력을 선의지의 통제 아래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최소한도로 사용할 때 그 강제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